

# 한글 타이포그래피 환경으로서의 문장부호에 대하여

— 표준화 이슈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 제안

심우진

도서출판 물고기

## Punctuations as an environment of Hangeul Typography

Sim Wu-jin

Mulgogi Publishing

키워드 문장부호, 전각, 반각, 한글, 표준, 전각, 반각, 유니코드, 문자 클래스  
punctuation, hangeul, standard, em space, en space, unicode, character class

## 차례

### 일러두기

#### 1. 서론

##### 1.1. 문제 제기

#### 2. 문장 부호의 대표적 기능

#### 3. 한글 환경에서의 문장 부호 차용 현황

##### 3.1. 반각 부호

##### 3.2. 전각 부호

#### 4. <한글+라틴 문장 부호 조합>상의 문제

##### 4.1. 상이한 나열 구조로 인한 글자면 높낮이 차이

##### 4.2. 글자를 너비의 차이

##### 4.3. 글자를 대비 글자면 크기의 차이

#### 5. <한글+전각 문장 부호 조합>상의 문제

##### 5.1. ‘글자를 내 글자면 위치’ 표준 부재

##### 5.2. 조판 표준 부재

##### 5.3. 번거로운 입력

#### 6. 구체적 문제 사례: 꺾쇠 괄호 <>

##### 6.1. 산술 기호와의 일관성 문제

##### 6.2. 정보 변질 가능성

##### 6.3. 폰트 호환성 저하

#### 7. 결론: 한글 문장 부호 개선안

##### 7.1. 문장부호 관련 표준 지정

##### 7.2. 문장 부호 클래스 지정

##### 7.3. 글자를 너비 8분 모듈화

##### 7.4. 글자를 너비 12분, 16분 모듈화

##### 7.5. 모듈화된 비례폭 지정

### 주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 일러두기

본 논문에서는 ‘한글’을 ‘완성형 고정 폭 한글’의 의미로 사용한다.

‘라틴 문자’는 ‘숫자를 포함하는 Basic Latin(u+0021~u+0072)’의 의미로 사용한다.

## 1. 서론

### 1.1. 문제 제기

글쓰기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문자’<sup>1</sup>와 ‘문장 부호’<sup>2</sup>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문장 부호는 쓰고, 읽는 과정에서 문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한글 조판에 사용되는 문장 부호는 글리프 제작상의 표준, 조판상의 표준이 미비하여, 타이포그래피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문장 기호의 대표 기능을 기술하고, 현재 한글 조판 상의 문장 부호 관련 문제를 개괄한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문장 부호의 대표적 기능

#### 2.1. 구분: 쉼표(,), 마침표(.)

구(句), 문장을 구분한다. 휴지(休止)도 일종의 구분으로 간주한다.

#### 2.2. 묶음: 괄호([[]]) 따옴표(“ ”), 줄표(——)

같은 위상의 글을 열기 부호와 닫기 부호로 묶어 이해를 돕는다. 줄표는 열기·닫기 부호의 모양이 동일하다.

#### 2.3. 감정, 상태: 느낌표(!), 물음표(?)

문장 끝에 삽입하여 화자의 감탄, 의문을 확실히 표현한다.

**2.4. 관계 표현: 가운뎃점(·), 빗금(/), 쌍점(:), 붙임표(-), 물결표(~)**

부호 삽입을 기점으로 한 좌·우의 상관관계(대응, 대립, 대등, 내포 등)를 표현한다.

**2.5. 강조: 드러냄 표(가로쓰기: ◦, 세로쓰기: ◌)**

가로쓰기의 경우 강조하려는 글자의 위에, 세로쓰기의 경우 강조하려는 글자의 오른쪽에 쓴다.

**2.6. 임의 텍스트 표현: 숨김표(××, ○○), 안 드러냄 표(□), 줄임표(……)**

텍스트가 들어갈 자리만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내지 않는다.

**2.7. 정보 위상차(hierarchy) 구분: 글머리 기호(lists buletting), 번호 매기기(numbering)**

글줄 시작에 특정 부호나 번호를 삽입하여 해당 단락이 목록의 일부임을 표시한다.

**2.8. 정보 인덱스: 덩벳, 오너먼트, 파이 폰트(pi font)**

덩벳 문자는 상형, 지시, 목록 등의 기능을 갖는다. 유니코드도 덩벳 영역(Dingbats Range: u+2700~u+27BF)을 지정해 놓았다(그림 1).

**2.9. 컬러 이모티콘**

그래픽적 감성 전달 기능이 더욱 강화된 컬러 이모티콘 폰트, 애니메이션 폰트는 새로운 타이포그래피 소통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다(Mac OS X Lion 번들 폰트인 Apple Color Emoji.ttf 등)

**2.10. 타이포그래픽 시각 유희: 모아쓰기와 풀어쓰기의 조화**

문장부호는 지면 풍경에 우연적이고 비연속적인 재미 요소를 촉발한다. 모아쓰기한 네모꼴 한글이 만들어내는 글줄 흐름에, 풀어쓰기 하는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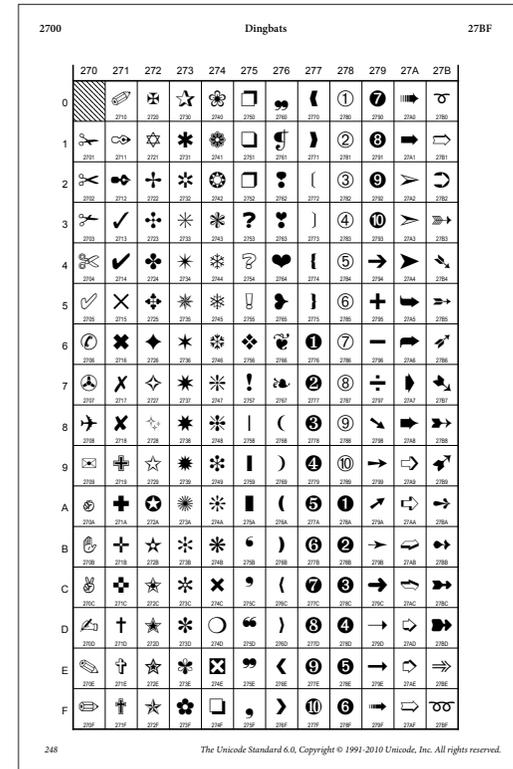


그림 1. 유니코드의 덩벳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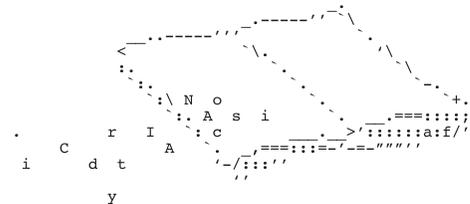


그림 2. 아스키 아트  
(<http://www.ascii-art.de/>)

부호가 삽입되면서 네모꼴이 반복 나열되는 패턴에 띄어쓰기와 더불어 시각적 환기를 촉발한다. 그 결과 활자 나열이 자아내는 조형적 흐름에 강약과 리듬을 부여한다.

### 2.11. 회화적 모아쓰기

문장부호를 모아쓰기 느낌으로 나열하여 (-\_-;) m(\_ )m 등과 같이 화자의 표정이나 자세를 묘사한다. 이런 방식으로 아스키 코드 영역 0x20~0x7e에 있는 글리프를 사용한 회화를 아스키 아트(ASCII Art)라고 한다(그림 2).

### 3. 한글 환경에서의 문장 부호 차용 현황

한글 폰트에 포함된 글리프 중에서 완성형 한글, 한글 자모<sup>3</sup>를 제외하면 한글과 관련한 것이 없다. 즉, 한글 문장에는 다른 문자권의 문장 부호가 사용하고 있다.

‘한글과 나열 구조가 상이한 라틴 글자의 문장 부호’나 ‘한글과 조판 환경과 폰트 제작 기준이 상이한 일본 가나의 문장 부호’를 한글과 섞어 짜면 시각적 불균형과 소모적 활자 세팅을 야기한다.

#### 3.1. 반각 부호

일반적인 키보드 입력 환경<sup>4</sup>에서 사용하는 문장 부호는 대부분 반각 문장 부호이며, 이들은 라틴 문자의 문장 부호를 차용한 것이다.

(예: Unicode title: Basic Latin- !"#\$%&'()\*+,-./:;<=>?[\]^\_`{|}~)

#### 3.2. 전각 부호

일반적인 키보드 입력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각 문장 부호에는 큰·작은따옴표 ‘ “ ” ’, 낫표 「 」, 겹낫표 『 』, 꺾쇠 괄호 < >, 이중격쇠 괄호 《 》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일본 가나의 문장 부호를 차용<sup>5</sup> 한 것이다.

### 4. <한글+라틴 문장 부호 조합>상의 문제

#### 4.1. 상이한 나열 구조로 인한 글자면 높낮이 차이

한글은 글자면 세로 길이가 800unit 후반대로 비교적 균등한 것에 비해 로마자는 400~700unit에 걸쳐 그 편차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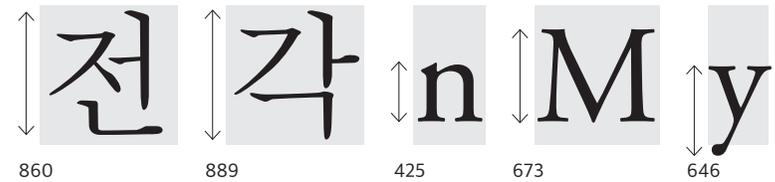


그림 3. 글자면 세로 길이 비교.

한글=sm3신명조02, 라틴 문자=Adobe Gramond Pro Regular (1unit = 1em/1000)

이러한 한글과 로마자의 상이한 특성은 문장 부호 디자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한글에 로마자 문장부호를 섞어 짜면 문자의 높낮이가 서로 어긋나게 된다.

(한글::-123)

그림 4. 한글+로마자 문장부호 섞어짜기.

한글=sm3신명조02, 라틴 문자=Adobe Gramond Pro Regular

#### 4.2. 글자틀(imaginary frame) 너비의 차이

한글(전각 고정폭)에 비해 라틴 문자(반각 가변폭)는 글자틀 폭이 좁다(그림 5). Adobe Garamond Pro Regular의 경우 평균 글자폭(547.5unit)은 전각(1000unit)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그림 6). 폰트별 편차를 고려해도 한글에 비해 라틴 문자의 글자틀 폭은 훨씬 좁다. 따라서 한글 전용 문장 부호의 글자폭은 라틴 문자 전용 문장 부호 보다 넓어질 필요가 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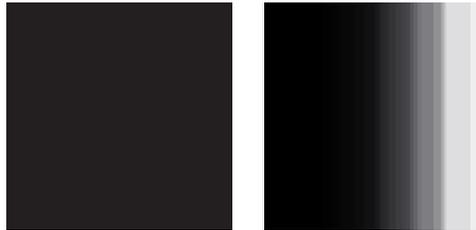


그림 5. 고정폭 한글과 가변폭 라틴 문자의 글자틀 너비 비교.  
한글=sm3신명조02/ 완성형 한글 2350자, 라틴 문자=Adobe Gramond Pro Regular/ 52자(a~z+A~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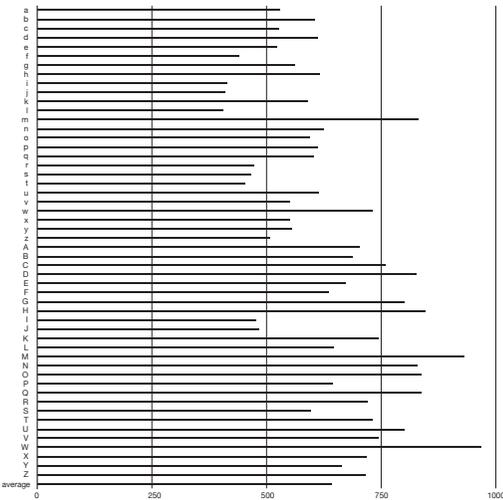


그림 6. Adobe Gramond Pro Regular/ 52자(a~z+A~Z) 글자틀 너비 상세와 평균  
(1unit = 1em/1000)



그림 7. 폭이 좁은 괄호(좌)와 넓은 괄호(우) 비교

#### 4.3. 글자틀 대비 글자면(typeface) 크기의 차이

한글은 글자틀 가운데를 기점으로 모아쓰기를 하므로 글자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글자틀 대비 글자면 크기가 90% 내외로 크다. 반면 베이스라인 정렬로 풀어쓰기하는 라틴 문자는 글자틀 내 상하 공간 차이를 요하므로 한글에 비해 글자면 크기가 작다(그림 8)(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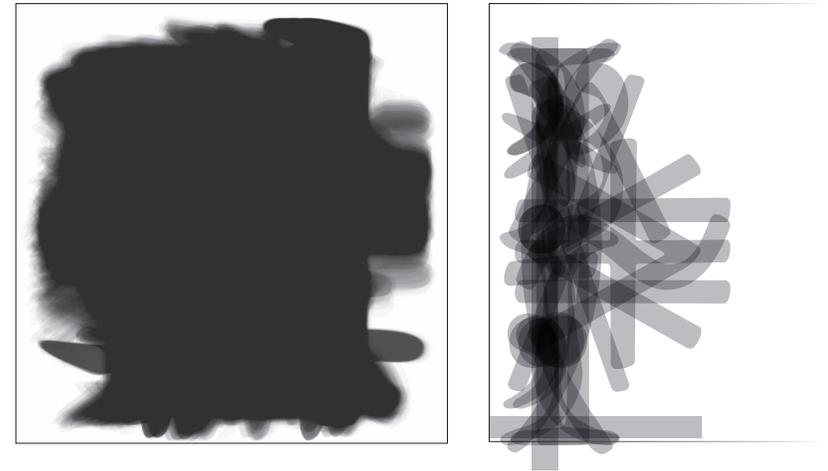


그림 8. 한글과 라틴 문자의 '글자틀 대비 글자면 크기'비교.  
한글=sm3신명조02/ 완성형 한글 2350자, 라틴 문자=Adobe Gramond Pro Regular/ 52자(a~z+A~Z)



그림 9. 라틴 문자의 문장 부호를 한글에 섞어싼 예  
라틴 문자 괄호의 글자면이 한글에 비해 작다. 한글=sm3신명조02, 라틴 문자=Adobe Gramond Pro Regular

## 5. <한글+전각 문장 부호 조합>상의 문제

한글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각 문장 부호(3,3)의 쓰임새나 개발에 대한 지침·표준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5.1. '글자들 내 글자면 위치' 표준 부재

열기, 닫기 문장 부호의 글자들 내 글자면 위치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동일 텍스트에 다른 회사 폰트를 적용하면 전각 문장부호의 글자들 폭이 달라지면서 단락과 지면의 양상이 의도를 크게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열기 괄호로 시작하는 글줄 머리에 의도치 않은 여백이 생겨 왼쪽 정렬, 양끝 맞추기 시, 단락의 왼쪽 외곽선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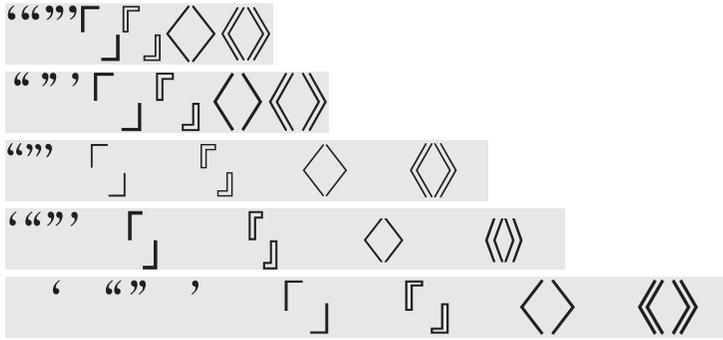


그림 10. 폰트 별 전각 문장 부호의 글자들 너비 차이.  
위로부터 나눔고딕 regular, Yoon가변 윤명조100Std\_OTF, 함초롬바탕 regular, SM3신명조, O2 산돌명조 L, HY신명조 Medium



그림 11. 폰트 별 열기 낫표의 글자들 너비, 글자들 내 글자면 위치 차이.  
좌로부터 나눔고딕 regular, Yoon가변 윤명조100Std\_OTF, 함초롬바탕 regular, SM3신명조 O2, 산돌명조 L, 한컴바탕 regular, HY신명조 Medium

## 5.2. 조판 표준 부재

글리프 디자인 표준(5.1)을 제정하려면 문장 부호의 조판 상의 방법론도 함께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열기·닫기 부호의 글자들 내 글자면 위치를 표준화하였다. 예를 들어 열기·닫기 괄호의 경우, 글자들(100unit)의 왼쪽 절반 영역(열기 괄호) 또는 오른쪽 절반 영역(닫기 괄호)에 글자면이 위치하도록 디자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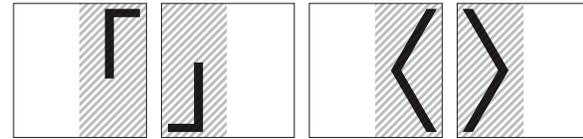


그림 12. 표준화된 전각 문장 부호의 글자들 내 글자면 위치 예시  
Hiragino Kaku Gothic Pro W3

InDesign 등의 조판 툴에서 전각 문장 부호의 여백을 조정할 경우에는 그림 12의 빗금 영역을 공백 0%으로 간주하여 공백을 주거나 없앨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3). 수치는 100분각(=em/100), 단위는 %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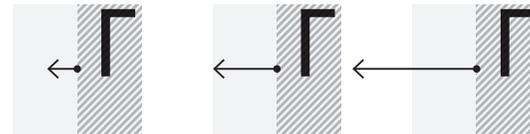


그림 13. InDesign 글자사이 설정 옵션의 개념도.  
왼쪽부터 여백 25%, 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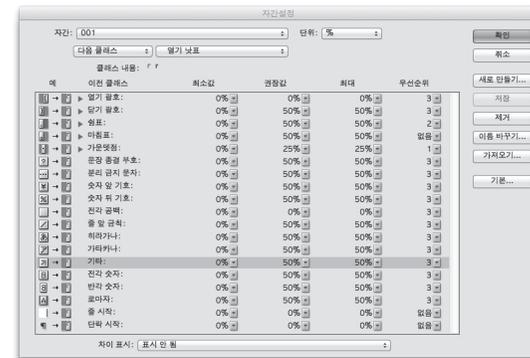


그림 14. InDesign 글자사이 설정 옵션의 설정 예시

### 5.3. 번거로운 입력

특수 문자 목록을 띄워서 선택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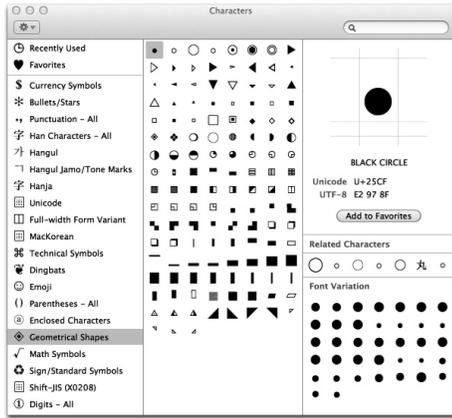


그림 15. Mac OS의 문자 보기(Character) 창

### 6. 구체적인 문제 사례: 꺾쇠 괄호 <>

꺾쇠 괄호<>(u+FF1C, u+FF1E)는 한글 문장 부호 타이포그래피의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sup>6</sup>이다.

전각 문자인 꺾쇠 괄호<>는 할당된 자판이 없어 입력이 번거로우므로, 대다수의 회사들이 <, >(u+003C, u+003E)(그림 16)를 눌러 꺾쇠 괄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등호 글리프의 모양을 꺾쇠 괄호로 임의 변경하게 되는데 관련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그림 16. 두벌식 자판의 로마자 부등호

### 6.1. 산술 기호와의 일관성 문제

산술기호인 부등호를 꺾쇠 괄호로 변형하면 다른 산술 기호 세트와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문자 클래스간 변별력이 떨어진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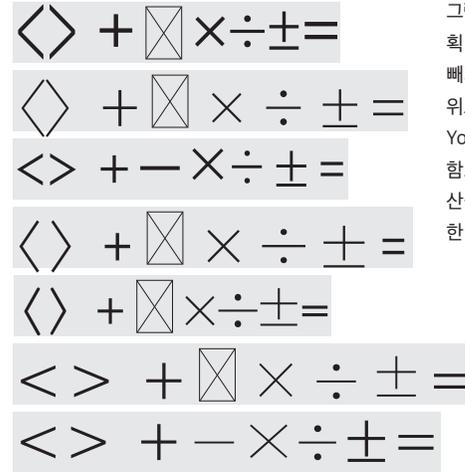


그림 17. 산술부호의 글자면 크기, 높이, 획 두께가 서로 맞지 않는 한글 폰트 예시. 빼기(minus) 글리프가 누락된 폰트도 많다. 위로부터, 나눔고딕 Regular, Yoon가변 윤명조100Std\_OTF 20, 함초롬바탕 Regular, SM3신명조 02, 산돌명조 L, HY신명조 Medium, 한컴바탕 Regular.

이에 반해 표준에 준하여 개발된 폰트들은 산술 기호들이 조형적 일관성을 유지하여 같은 문자 클래스임을 쉽게 알 수 있다(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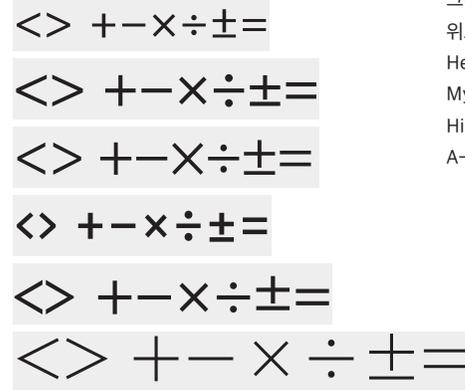


그림 18. 산술 기호 예시. 위로부터, Adobe Garamond Pro Regular, Helvetica Neue LT Std 55 Roman, Myriad Pro Regular, Unit Regular, Hiragino Kaku Gothic Pro W3, A-OTF Gothic MB101 Pro L

## 6.2. 정보 변질 가능성

<, >를 정확히 부등호로 사용한 텍스트를 한글 폰트로 표현할 경우, 부등호가 꺾쇠 괄호로 바뀌면서 정보가 변질될 수 있다(그림 17).

$I+2=3>I$     $1+2=3>1$

그림 17. 부등호를 규정대로 사용한 라틴 문자 폰트와 부등호를 꺾쇠로 변형한 한글 폰트 비교.

## 6.3. 폰트 호환성 저하

부등호를 꺾쇠 괄호의 대응으로 사용하는 한글 폰트도 많이 출시되어 있으나, 5.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작 방식에 차이가 있어 한글 폰트끼리의 크기, 위치 편차가 크다(그림 18).



그림 18. 한글 폰트의 꺾쇠 괄호 비교

## 7. 결론: 한글 문장 부호 개선안

이상 논의한 바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7.1. 문장부호 관련 표준 지정

상용한자처럼 상용 문장 부호를 지정하여 폰트 개발사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표준화를 유도해야 한다. 업계, 학계,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한다.

### 7.2. 문장 부호 클래스 지정

이미 존재하는 문자 클래스와는 별도로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유용한 분류를 지정하여 클래스별로 글자를 폭을 일정하게 지정한다. 간략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표 1).

열기 괄호		
'	2018	Left Single Quotation Mark
"	201C	Left Double Quotation Mark
(	0028	Left Parenthesis
[	005B	Left Square Bracket
{	007B	Left Curly Bracket
<	3008	Left Angle Bracket
《	300A	Left Double Angle Bracket
┌	300C	Left Corner Bracket
┐	300E	Left White Corner Bracket

닫기 괄호		
'	2019	Right Single Quotation Mark
"	201D	Right Double Quotation Mark
)	0029	Right Parenthesis
]	005D	Right Square Bracket
}	007D	Right Curly Bracket
>	3009	Right Angle Bracket
》	300B	Right Double Angle Bracket
┐	300D	Right Corner Bracket
└	300F	Right White Corner Bracket

하이픈		
-	2010	Hyphen
~	301C	Wave Dash
-	2013	En Dash
—	2014	Em Dash
…	2026	Horizontal Ellipsis
⋯	2025	Two Dot Leader

구독점		
,	002C	Comma
.	002E	Full Stop
、	3001	Ideographic Comma
。	3002	Ideographic Full Stop

문장 종결 부호		
?	003F	Question Mark
!	0021	Exclamation Mark
!!	203C	Double Exclamation Mark
!?	2049	Exclamation Question Mark

가운뎃 점		
•	30FB	Middle Dot
:	003A	Colon
;	003B	Semicolon

연산 기호		
+	002B	Plus Sign
-	2212	Minus Sign
±	00B1	Plus-Minus Sign
×	00D7	Multiplication Sign
÷	00F7	Division Sign

표 1. 문장 부호 클래스 지정 예시

완성형 한글, 한글 자모 등을 포함하는 한글 폰트에 포함되는 모든 글리프가 현실적인 기준으로 재분류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장 부호의 제안도 가능할 것이다.

### 7.3. 글자들 너비 8분 모듈화

열기·닫기 문장 부호의 위치 기준을 지정한다. 기본 글자 틀 폭의 모듈을 125unit으로 지정하여, 전체 문장 부호를 125, 250, 375, 500, 625, 750, 875, 1000unit 군으로 8분하여 규격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하다.

글자들 폭에 배수 단위를 적용하면, 글줄 머리·꼬리 외곽선을 정교하게 정렬할 수 있으며, 양끝 맞추기 시, 각 글줄의 글줄 사이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등 보다 더 체계적인 글자들 너비 관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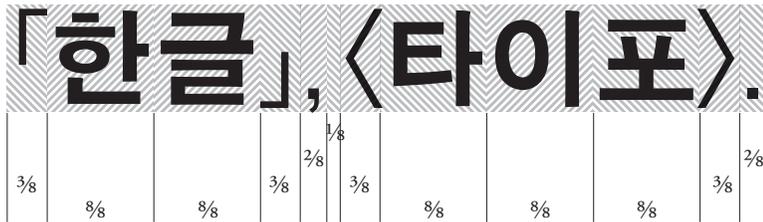


그림 19. 글자들 너비 8분 모듈화 적용 예시  
완성형 한글=8/8, 열기닫기 문장 부호=3/8, 구독점=2/8

### 7.4 글자들 너비 12분, 16분 모듈화

다른 표본 예시로서 표 2<sup>7</sup>를 인용하고자 한다. 저자는 16분 모듈화를 제안하고 있다(표 2). 또한 기준에 3분, 4분 너비로 정의된 문장 부호를 고려하여 24분 모듈도 제안<sup>8</sup>하고 있다. 세분화된 모듈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12분 모듈도 고려해봄직 하다.

InDesign의 글자사이 설정 옵션(그림 14)에서는 4분을 기본 설정으로 하되, 사용자 정의에서는 100분으로 설정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7.5 모듈화된 비례폭 지정

그림 19와 같이 모든 문장부호의 글자들 너비를 모듈화된 비례폭으로 지정함으로써, 종전의 '글자들 내 글자면 위치' 표준 부재(5.1)를 해결한다.

부호	간격	부호	간격
괄호의 앞과 뒤	3-4hu	느낌표의 앞	4hu
물음표의 앞	3hu	문장부호 뒤의 닫는 따옴표	3hu
출표 시작 전	1hu	출표 끝	1hu
가운뎃점의 앞뒤	2hu	영문자 뒤	2-3hu
단항수식의 뒤	2hu	다항수식의 뒤	3hu

표 2. 한글 문장 부호의 간격 제안 (hu = 1/16em = 0.0625em)  
김강수, 「한글 문장부호의 조판 관행에 대하여」, 한글텍사용자그룹, 2007, p.28

•

## 주

- 01 — 폰트에 포함되는 글리프 중에서 문자(alphabets, letters)를 제외한 글자(characters)
- 02 — 구독점, 괄호, 기타 특수 문자 등을 총괄하는, 문자(letter) 이외의 모든 글리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넓은 의미의 punctuation.
- 03 — 완성형 한글 글리프(u+AC00~u+D7A3), 초성 자모(u+1100~u+1112), 중성 자모(u+314F~u+3163), 종성 자모(u+3131~u+314E), 한글 자모 확장(u+1161~u+1175, u+11A8~u+11C2, u+3165~u+318E)
- 04 — 두벌식 자판. Win의 경우 'Microsoft 입력기', Mac의 경우 '두벌식(2-set Korean)'
- 05 — 근대 활자 조판 시스템 차원에서의 차용을 의미한다. 녹두장군 전봉준의 사발문에 사용된 낫표에서 보듯 그 기원까지 일본어 조판에 기인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 06 — 그 외 따옴표 “ ”, 낫표 「 』 등도 꺾쇠 괄호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이고 있다.
- 07 — 김강수, 「한글 문장부호의 조판 관행에 대하여」, 한글텍사용자그룹, 2007
- 08 — 김강수, 「한글 문장부호의 조판 관행에 대하여」, 한글텍사용자그룹, 2007, p.27

## 참고문헌

### — 논문

- 김강수, 「한글 문장부호의 조판 관행에 대하여」, 한글텍사용자그룹, 2007  
김병철, 「한국 구두점 기원고」, 한국학보, 제3권 4호, 1977  
이복규, 「우리의 옛 문장부호와 교정부호」, 고문서연구 9.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 — 웹사이트

日本語組版処理の要件 <http://www.w3.org/TR/2011/WD-jlreq-20111129/ja/>

## 초록

훈민정음 창제 이래 한글 타이포그래피 환경은 수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 개선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글 조판에 라틴 글자와 일본 가나의 타이포그래피 방법론을 차용했으며, 한글 특성에 기반한 독자적인 조판 방법론, 문장 부호 지침, 폰트 제작 표준 등의 타이포그래피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글은 보급되어 사용하게 된 시기를 고려해보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문자이기도 하다. 20세기 후반부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더욱 성장하려면 그 토대가 되는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문용 완성형 한글 폰트를 구성하는 글리프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복잡한 구조와 역사를 갖는 문장 부호의 사용 환경을 살폈다. 현재 문장 부호 조판 상의 문제를 분석하여 폰트 개발과 조판 환경 개선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한글 폰트 간의 호환성 증대와 본문 타이포그래피의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현에 작은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 Abstract

The environment of Hangeul Typography has been improved by many people since the invention of Hunminjeongeum. Yet, typography methodologies of Latin Alphabet and Japanese Kana are still used in Hangeul typesetting. Typographic infrastructures, such as independent typesetting methodologies, punctuation guidelines, font production standards, are currently insufficient.

Hangeul, however, is also a very quickly evolving letter considering the period of its dissemination and wide usage. In order to improve the Hangeul Typography, which is showing an impressive growth since the late 20c, compensation of the infrastructure foundation is required.

The punctuation usage environment, which takes up a significant portion of Hangeul text type font glyph and has complex structure and history, was studied in this paper. Problems of current punctuation typesetting was analyzed. Alternative options to improve font production and typesetting environment was proposed.

This study is hoped to raise a small opportunity for the increase in Hangeul fonts compatibility and implement efficient Hangeul Typography process.